



Wemade ENT 플라워 동호회를 만나다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딱딱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만의 눈부신 무언가 하나를 찾았다면 그 만큼 보람 되고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메카이자, 전 세계 게이머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글로벌 벤처기업,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Wemade Entertainment / 이하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Fun 경영'을 실천하며 사내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그 중 꽃꽂이 동호회인 '위메이드 플라워 가든(Wemade Flower Garden)'이 모인 현장을 찾아갔다.

글\_ 김채우 기자

※ 벤처기업의 멋진 동호회를 취재하는 코너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동호회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참여문의 : 벤처산업협회 홍보정책팀 02-890-0632 / hongbo@kova.or.kr

향기나는 사람들이 뭉쳤다

이름만 들어도 향기가 날 것 같은 '위메이드 플라워 가든(Wemade Flower Garden)'. 꽃가게 이름도 아니고, 잡지의 이름도 아니다. 바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사내동호회의 이름.

지난 2008년 11월 개설돼 총 15명의 회원으로 운영하는 위메이드 플라워 가든(Wemade Flower Garden, 이하 플라워 가든)은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꽃꽂이를 즐기는 동호회다.

만들어진지 이제 두 달이 된 이 새내기 동호회의 회장은 기획실의 이정미 씨. 지난 2007년 연말에 지인에 돌잔치에 갔다가 아름다운 생화로 장식한 돌상과 포토테이블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2008년 초부터 약 9개월 간 플라워 레슨을 받기 시작한 것



# Wemade entertai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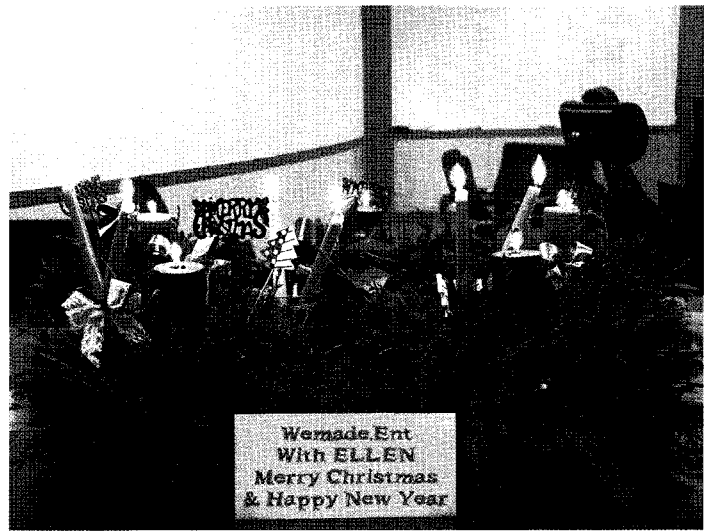


온라인 게임 엔터테인먼트의 바이블

## Wemade Entertainment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 서수길)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2000년 5월 설립했다. <창천온라인>, <네드>, <타르타로스>, <미르의 전설> 등 다양한 게임을 개발·서비스 해 국내 게임시장의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르의 전설2>는 세계 최고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해 게임업계의 전설이 됐다.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폭스'라는 프로게임단을 운영, 게임 스포츠 산업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늘 새로운 상상력, 넘치는 도전 정신으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세상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비전.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신선한 장르와 내용의 게임으로 온라인게임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 계기가 됐다. 그는 “꽃에 집중할 때는 온갖 잡념과 고민을 잊게 되고, 마음이 안락과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여유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 노·사 협력 증진,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플라워 가든의 정기모임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사내의 대회의실에서 외부 플로리스트 강사를 초청해 약 2~4시간씩 강습을 받는다.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 플로리스트 과정을 배우면서 친목 도모를 한다. 회사에서도 플라워 가든을 전폭적으로 응원하며 활동비를 50% 지원하고, 플라워 가든 또한 회사 행사나 사회공헌활동 시 동참하고 있다.

꽃을 다룬다는 특성상 남자회원이 없을 것 같지만, 플라워 가든에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여직원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는 홍보팀 정석원 씨가 청일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꽃을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그는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한 가지씩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업무의욕 증진이라는 것 이외에도 플라워 가든 회원들은 사내 동호회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조급한 성격을 차분하게 고치게 됐다”라고 하는가 하면, “시아버님 생신 때 꽃바구니와 플라워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아버님이 감동을 받고 용돈을 주시며 사랑받는 며느리가 됐다”며 사연을 말하기도.

플라워 가든이 2009년 새해를 맞이해 세운 계획이 있다면 정규회원 15명 모두 플로리스트 베이직 과정을 수료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또한,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해 자체적인 레슨과 활동을 이어가며 외부 봉사 기금 마련 행사의 일환으로 꽃바구니나 꽃다발 등의 판매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다.